

한국전통 실내공간의 구성방법과
요소 분석을 통한 의미 고찰

- 조선조 추사고택을 중심으로 -

An evaluation of the composition and elements
in Korean traditional interior space

- On Chosa-Gotack in the Chosun dynasty -

천 진 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학과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추사고택의 입면적 특징

- 2.1. 채의 배치와 좌향
- 2.2. 실의 높낮이
- 2.3.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
- 2.4. 입면적 척도

3. 추사고택의 평면적 특징

- 3.1. 평면의 구성단위
- 3.2. 칸의 확장성
- 3.3. 평면적 배치의 개방성과 폐쇄성
- 3.4. 가구와 기물배치의 특징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CHOOSA-GOTACK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traditional houses in the CHO-SEON dynasty consists of the four terraced building group. Among those, SADANG CHAI are located in the highest level, and SARANG-CHAI and SADANG CHAI are toward south direction. It means that building orientation and level were influenced by the distinction of social level and the idea of ancestor worship. Floor and ceiling level in the same building is different which was caused by the distinction of social level in the CHO SEON dynasty and an oriental dual principle of the negative and positive.

The interior elements such as a variety of openings, exposed ceilings, and furniture against a wall were creating a typical Korean visual harmony. Although the furniture and equipments were very important elements in ONDOL BANG, the occupance ratio of these were low because the free space in BANG should be utilized effectively to accommodate the space variation.

Both an AN CHAI and SARANG CHAI were composed by the standard space module called KAN. And interior elements were establish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the human scale, the behavior pattern in traditional sitting life style, and the lumber size of post and lintel construction of Korean house. BANG and DAE CHUNG, composed of KAN, were expanded and arranged side by side so that the natural light and ventilation through them could be used. In the result of the kind of lay out, traffic circulation was disturbed.

In conclusion, CHOOSA GOTACK was formed by the direct effect or the mutual intera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al background and the cultural environmental background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is study was based on one sample. It may not enough to deduct solid conclusion. Therefore continuous and further study is needed for the systematic evaluation.

한글 요약

추사고택은 조선조 상류주택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실내공간의 구성방법과 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한 문화과정 속에서 다 가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정형화된 공간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계단식의 입면을 구성하는 엄격한 계층성에 의한 장소성을 표현하는 인례가 되며, 마루와 온돌의 높이는 신분상의 위계질서와 음양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입면을 구성하는 목가구식 구조의 노출진상과 창호는 4계절의 기후변화 속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합하며, 자연미와 전통적 조형미가 어우러진 환유 보유미를 창조하고 있다. 추사고택에서 천상고와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치수를 조사해본 결과, 대청의 입면적 척도는 각 부세의 치수와 함께 사용자의 인체치수와 관계가 있었다.

평면 구성상의 특징은 규칙화이며, 이것은 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둥 간격 차이는 성별, 인체 치수 차이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1칸을 기본 모듈로 하여 규칙적인 공간 단위를 병렬로 증식시켜 확장한 것은 주인의 일상생활이 하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이다. 추사고택 안채는 폐쇄적인 ㅁ자형, 사랑채는 개방적인 7자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조선조의 남녀 지위차등과 내외사상, 그리고 자연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주거의 평면 구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조선시대 상류 주택 중 한 사례에 한정되었으므로, 현존하는 많은 사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korean traditional interior, CHOOSA GOTAK, composition evaluation

1. 서론

1.1. 연구 목적

한국전통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80년대 후기 모더니즘이 계기가 되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현 수단으로 가시화되면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한국성을 건축이나 실내디자인에 표현함에 있어서는 원형을 직선적으로 재현하는 방법과 조형의 모티프로써 양식적 근거 위에 디자이너의 재해석이 은유적으로 가해지는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성이 건축이나 실내공간에 구사된다 하더라도 한국적 이미지나 요소 인용에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외형 안에 내재되어있는 의미를 충분히 고찰해본 후 작업에 적용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 공간을 분석하여 내재되어있는 한국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주택은 공간의 구성방법과 요소의 표현 양식으로 인하여 전통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입과 동시에 한민족의 역사성과 자연, 인문적 환경을 내포하고 있는 유구이다. 특히 조선조 상류주택중 추사고택은 구체적인 史料로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나, 실측하여 평면화,입면화된 정확한 도면이 없다고 판단되어 필자가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한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되어있는 의미와 질서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한국성의 모색과 표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한국전통 실내공간의 분석에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시대와 계층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전통주택은 주로 조선조 후기의 유구이며, 그 이전의 유구들은 건축적 외형이 잘 보존되어있다 하더라도 실내공간의 보존 상태가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며, 특히 민가는 상류주택에 비해 보존 상태가 더욱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초단계로 현존하는 한국 전통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조 후기에 건축된 주택 중 그 구성 방법과 요소들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인 상류주택을 연구 범위로 국한시키고자 하며, 사례분석의 틀로 조선조 상류주택의 한 예이며, 현존 유구 가운데 실내와 기물에 대한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43호인 秋史 金正喜 선생의 古宅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보조원과 2인 1조가 되어 예비답사(1995.11)와 본답사(1996.4)를 통해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실측하고 사진을 찍어 여러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이미 정립되거나 추측되어지는 이론을 재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일부 보편적인 이론들이 추사고택의 경우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본인이 실측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연구 결과는 입면상에 나타나는 특징과 평면상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도면화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형성시킨 시대적, 환경적 요인과 함께 그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1) 소재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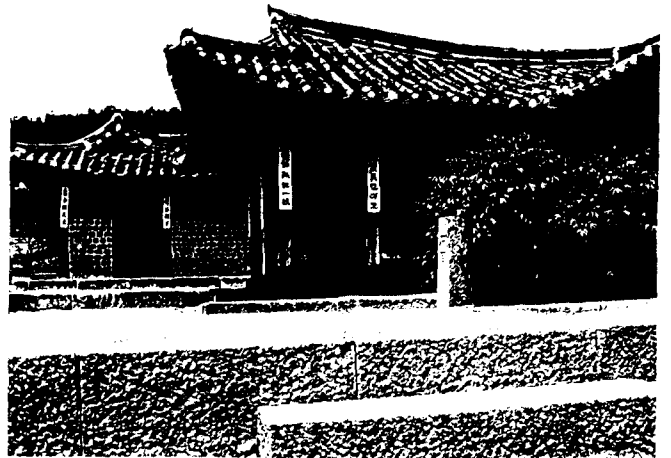
건물연혁 : 추사고택은 조선후기 서예가이며 금석학자인 김정희의 고택으로 증조부인 부마 김한신에 의해 18세기 중엽 건립되었다고 한다. 후손이 거쳐오던 고택을 1968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1976년 고택과 曺순용주 紅門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76년 정화사업이 착공되어 1977년 준공된 후에는 충청남도 추사고택 관리소가 설치되어 관리되었다.1980년 이후 현재까지는 예산군에서 관리를 이관받아 유지보존하고 있다.

건물구성 : 추사고택은 805평으로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 그리고 사당채가 있다. 안채는 6間 대청과 2間通의 안방과 건너방이 있고 2개의 부엌과 안대문, 현문, 광등을 갖춘 卍자형 집이다. 안방과 건너방 밖에는 각각 햇마루가 있고 부엌 천장은 다락으로 되어있으며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는 대청은 그리 혼하지 않은 규모이다. 이러한 卍자형 가옥은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에 분포되어있는 이른바 '대갯집'형이다. 사랑채는 바깥 소솔대문을 들어서 마당에 자리잡은 7자형 집으로 안채에 비해 규모가 작다. (추사고택 Pamplet,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 충청남도 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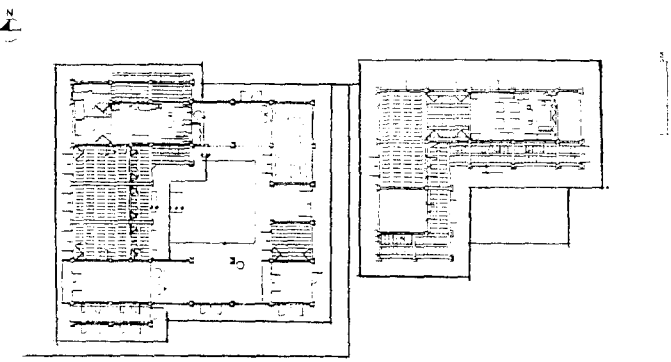
2. 추사고택의 입면적 특징

2.1. 채의 배치와 좌향

추사고택에서 채의 배치를 살펴보면, 소솔 큰대문을 지나면 문간채가 있고(현재는 건물이 소실되어 터만 남아있다), 문간채 바로 위에 사랑채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위로 안채, 안채 위로 사당채가 자리잡고 있어 계단식의 입면을 구성하고있다.(사진 1)(그림 1) 즉 상위 공간은 주출입구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하위 공간은 아랫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특히 사당은 보통 사대까지 조부모의 신위를 모시는 성역이나 다름없는 곳이므로 건물을 남향하여 가장 높은 곳에 두었고, 문간채는 신분이 낮은 하인들이 기거하던 공간이었으므로 대문 옆에 두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엄격한 계층성에 의한 장소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채의 기단이 사랑채 기단보다 높고 계단수도 많아, 안마당부터 안대청까지는 1090mm, (그림 2) 사랑마당부터 사랑대청까지는 860mm인데,(그림3) 이는 유교적인 제례와 민속적인 혼례 및 집안의 대소사가 사랑채가 아닌 안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공간의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기풍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사랑채와 사당채는 남향하고, 안채는 동향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의 상징적 지위가 채의 좌향과 위치를 통해 표현되는 일례가 되며, 유교의 조상숭배, 의식중심적 생활, 철저한 계급의식적 사고방식이 건물의 좌향과 주거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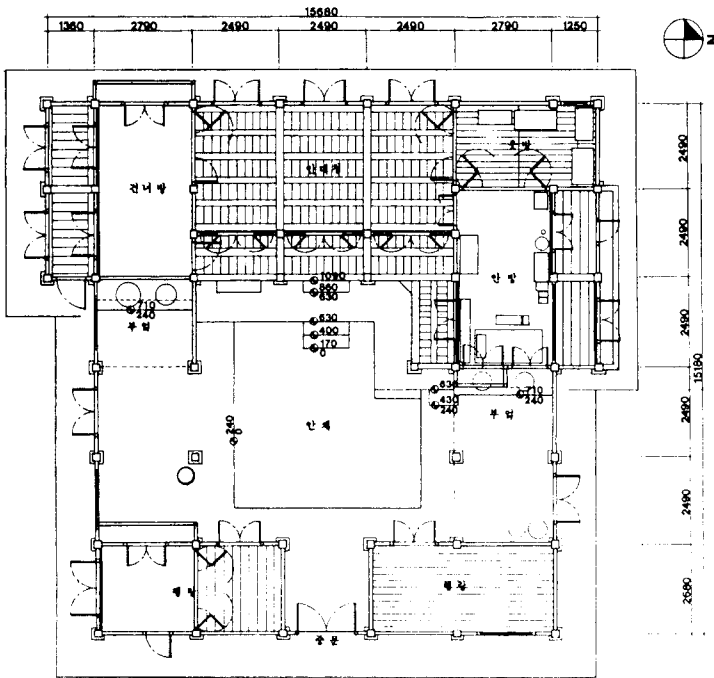


(사진 1) 소솔대문에서 바라본 사랑채와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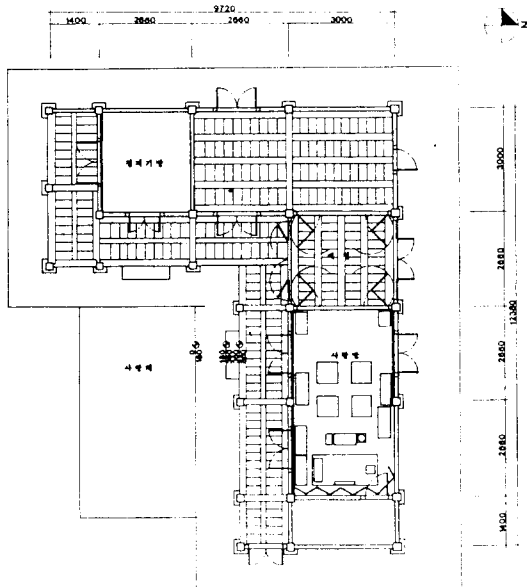


(그림 1) 추사고택 배치도

김경원외 "한국 전통주택의 내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P. 113의 배치도를 참고하여 재도면화



(그림 2) 추사고택 안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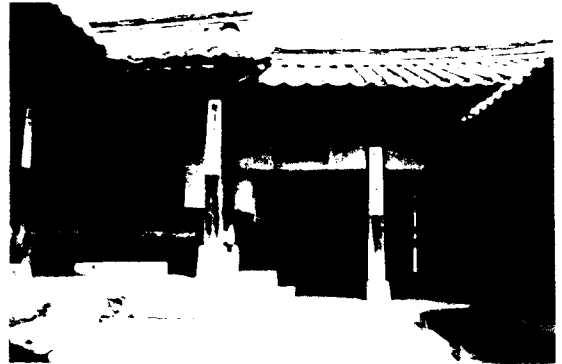


(그림 3) 추사고택 사랑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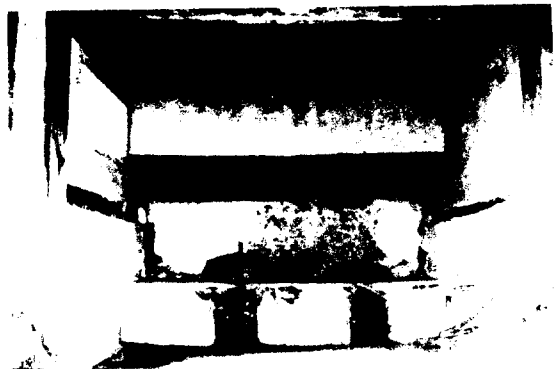
2.2. 실의 높낮이

추사고택은 동일한 채 안에서도 마루 구조의 대청과 운동방은 높은 위치에 놓여지고, 부엌은 아주 낮게 설치되어 있어(사진 2) 안대청은 부엌 바닥보다 850mm나 높이 배치되어 있고(그림 2) 부엌의 부뚜막 위는 안방과 통하는 다락이 된다(사진 3) 지붕의 높이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엌 쪽이 300mm(1척) 정도 낮은데 가 실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배치된 것은 신분상의 위계질서 때문이며, 추운 북방에서 시작된 운동과 따뜻하고 습한 남방에서 비롯된 마루라는 이질적 요소가 한 건물 안에서 함께 결합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말해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 대청은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의 의미를 지니,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며 가장 높고 향이 좋은 곳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사랑채에 누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청보다

더 높은 곳에 누마루를 두어 공간의 위계 질서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난방과 취사를 겸한 부엌은 하인의 작업역으로 아주 낮게 바닥을 마감하였으니 이것은 조선시대의 상위 공간과 하위 공간의 분화의 한 예가 된다. 또한 내부공간의 성격을 마루와 방으로 나누는 것은 음양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마루는 더위 속에서 시원함을 찾기 위한 것으로 양중 음의 공간, 운동은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음 중 양의 공간이 된다. 방이 온돌 구조로서 수천년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적 요인과 천연자원 및 식량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



(사진 2) 안방과 부엌, 그리고 다락



(사진 3) 안채 부뚜막과 다락 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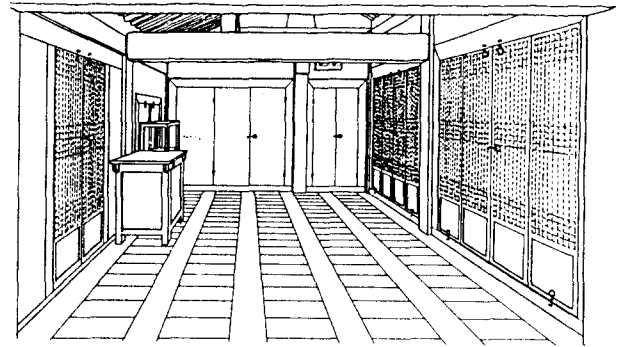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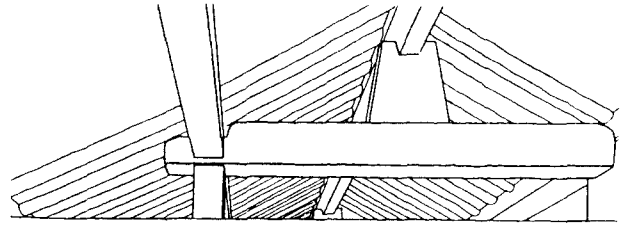
2.3.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

상류주택 실내의 입면 구성은 방과 마루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사고택 대청의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목가구식 구조의 건축 체계와 창호이다. 바닥과 대들보, 처마도리, 종도리, 종도리 구조의 노출 천장은 목재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색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구성 요소이며, 대청과 방, 대청과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는 창호는 전통적인 단아한 미를 창조하는 구성 요소이다. 느낄 수 있도록한다(그림 4-7) 다시말해 안대청과 사랑대청 전면의 들어열개문을 비롯하여, 대청 후면의 판상문, 안채의 옷방과 대청과의 경계를 이루는 세쌍의 불발기문과 안방과 대청 경계의 두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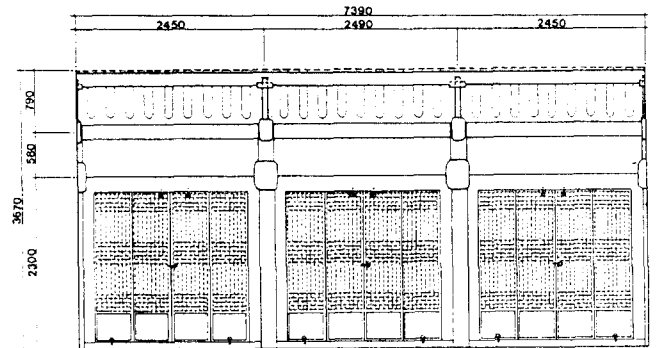
2) 문의 상하부는 안팎으로 도배하고 중앙부에만 장식적인 문살을 구성하여 노출시

의 맹장지문³⁾, 사랑대청과 사랑방 경계의 분합문⁴⁾ 등이 인체치수에 적합한 규격화된 크기로 제작되어 한옥 특유의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 대청의 입면을 구성하는 창호의 특징은 다양한 개폐 방법과 필요에 따른 공간의 확장성으로, 여름에는 전후면의 창호를 모두 열고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여 시원한 공간을 만들고 동시에 앞 뒷마당의 자연 경관이 실내에 그대로 투영되어 자연과 한옥 특유의 건축적 요소가 입면을 형성하게 되며, 겨울에는 4면의 창호가 대청의 입면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그러나 상류주택 대청 전면에 창호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완전히 개방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한옥의 개구부는 4계절의 기후 변화 뿐 아니라 좌식생활에 기초한 인체치수, 그리고 유교적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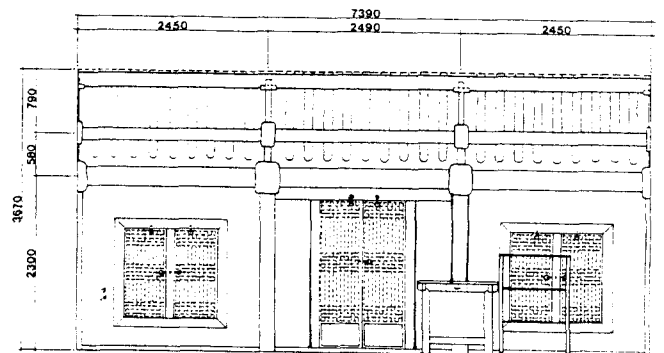
또한 운동방에서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창호와 백색조의 벽면을 배경으로 한 가구이며, 이때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의 자연광으로 말미암아 실내를 구성하는 요소의 형태와 색채가 더욱 온화하고 부드럽게 변화되어 보인다. 방에서 배경이 되는 벽과 그림이 되는 가구, 면적인 벽면과 선적인 노출 건축 부재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요소가 서로 보완됨으로써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사진 4) 그 외에도 병풍은 방의 입면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키 큰 병풍과 그 앞에 놓여지는 낮은 가구는 대비를 통한 변화와 리듬감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공간과 가구, 면과 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는 노자 도덕경 2장의 長短相較 高下相傾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를 나타내게 하며 높은 것은 낮은 것을 서로 유인한다."⁵⁾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전통 상류주택 실내에서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창출해내는 미는 꼭 짜여진 단아함과 회백 처리된 벽채가 만들어내는 여백미의 조화, 그리고 대청의 건축적 스케일과 공간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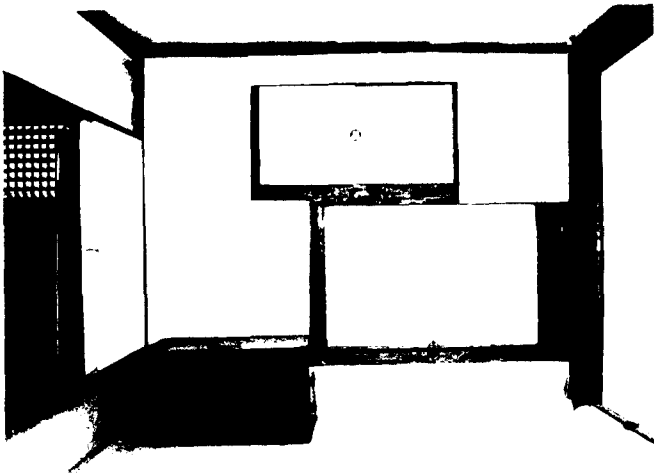
(그림 4) 안대청의 노출 천장과 우물마루, 그리고 창호



(그림 5) 안대청 중층 입면도



(그림 6) 안대청 서층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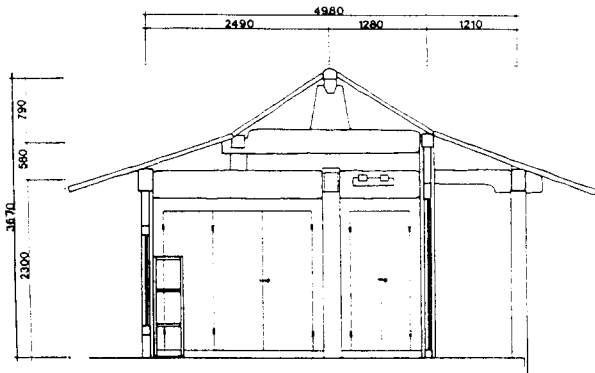
(사진 4) 벽과 가구, 벽면과 건축 부재가 이루는 대조와 변화

킴으로서 채광과 장식 효과를 겸하도록 한 문. 중앙부의 울거미를 사각형이나 팔각형의 격자나 완자살로 다양하게 장식하였다.

3) 한지를 안팎으로 두겹게 바른 창호

4) 개폐방식은 여닫이 문이고 분합걸쇠를 대청에 설치하여 들어올려 거는 문.

5) Amos In Tiao Chang, 윤장섭 역,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1984,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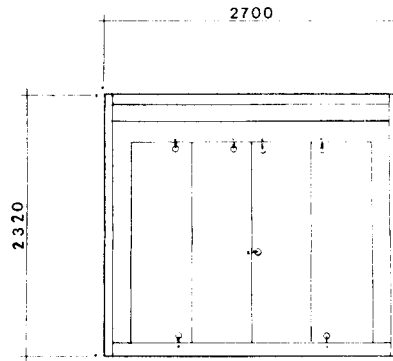
(그림 7) 안대청 북측 입면도

2.4. 입면적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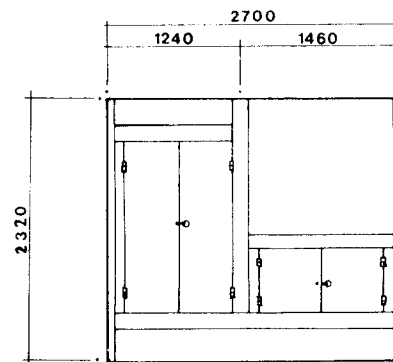
추사고택에서 천정과와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치수를 조사해 본 결과 기준이 되는 척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통 대청의 입면적 척도는 각 부재에 따라 지붕의 높이와 경사가 결정되는데, 서까래는 지붕의 빗물받이 물매에 따라 30도 정도의 각도로 길러지며, 처마도리부터 중도리까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높이도 낮으나, 중도리부터 종도리까지는 경사가 급해서 중심부에서 가장 높이가 높아져 중심부의 가장 높은 자리는 평균 10척(3000mm)이 되나,⁶⁾ 조사된 추사고택 안대청의 천장고는 3670mm로 12척을 넘어 평균을 상회하는 높이이다.(그림 5-7) 이 치수는 5척을 평균 신장으로 가정하였을 때 마루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 위 한 길이 훨씬 넘는 높이이다. 주된 활동 영역이었던 방의 천장고는 안방이 2320mm,(그림 8-11) 사랑방이 2230mm인데,(그림 12-15) 이는 사용자의 키와 놓여지는 가구의 높이와 상관성이 있다. 특이한 점은 사랑방에 비해 안방의 천장고, 사랑대청에 비해 안대청의 천장고가 높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추사고택의 경우 안채의 규모가 사랑채보다 크며, 안채에서 집안의 대소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추사고택 방의 머름대의 높이를 살펴보면, 안방의 경우 쌍창 자체의 높이 4.1척(1240mm)에 머름대까지의 높이가 1.6척(480mm)을 합해 5.7척(1710mm) 정도가 되며 (그림 10, 11), 사랑방은 쌍창의 높이 3.9척(1180mm)에 머름대까지의 높이 약 1.7척(500mm)을 합해 5.6척(1680mm) 정도가 되어,(그림 15) 동행에 편리한 개구부의 치수가 된다. "머름대의 높이는 문갑 등 실내 가구 제작에서 높이를 제한하는 절대 기준치가 되기도 하였는데"⁷⁾, 창문을 방바닥에서 약간 올리게 한 머름대의 효용을 생각하면 셋째로 겨울철에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의 냉기가 직접 들어오는 것을 완화시키는 유리한 점이 있고, 둘째로는 실내와 실외의 상황을 어느정도 가려주는 시각적 은폐효과가 있다. 셋째로는 창가에 앉아 머름대 위로 팔을 걸치고 내다보기 편리한 기능적인 면이 있다.

이 외에도 온돌방에 놓이는 가구치수를 조사해본 결과라, 부피가 작고 아담하게 제작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인의 행동 양식이 가부좌의 형태를 기본으로하여 팔을 들어 올린다는가 부엌으로 동선을 이동함으로써 전체적인 입면 척도가 현대의 입석생활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조선시대인의 앉은키를 79.6cm⁸⁾로 가정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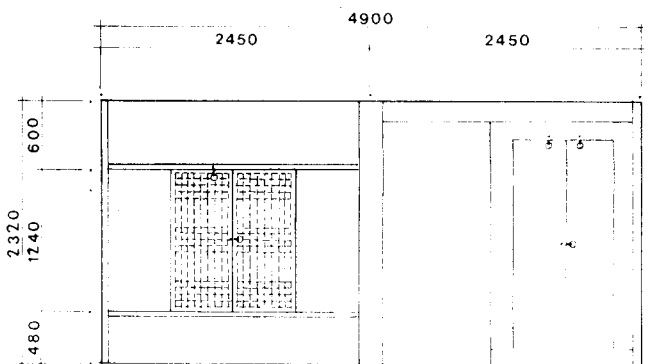
때 팔을 들어올린 높이는 116cm¹⁰⁾인데, 앉은 자세에서 사용하는 머릿장, 문갑, 반달이류의 높이가 32.2-95.8cm의 범주¹¹⁾에 속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가구가 사용자의 인체 동작 범위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안방 등측 입면도



(그림 9) 안방 서측 입면도



(그림 10) 안방 남측 입면도

6) 신영호, 한옥의 조형, 태원사, 1994,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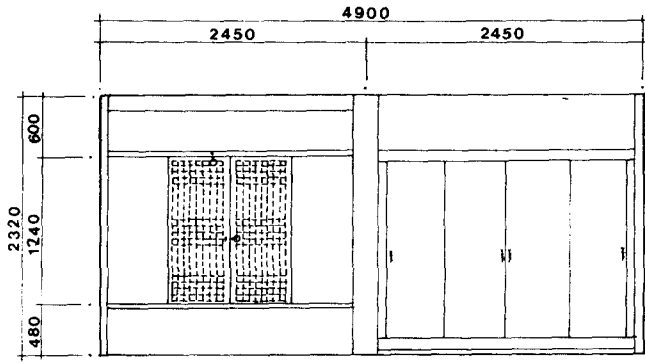
7) Ibid, p77

8) 신진희,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 연구 제 4호, 상명여사대학교, 1996, p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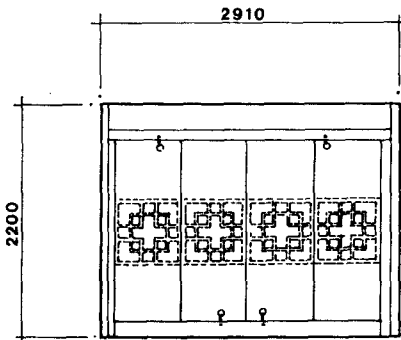
9) 최상현, 조선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1992, p54

10) 진진희, Op. cit., p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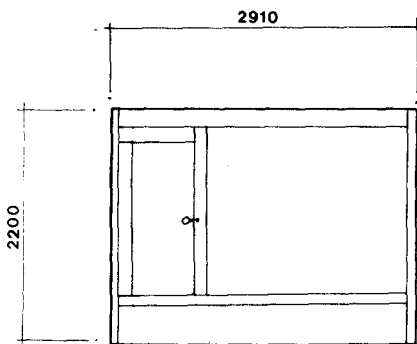
11) Ibid, p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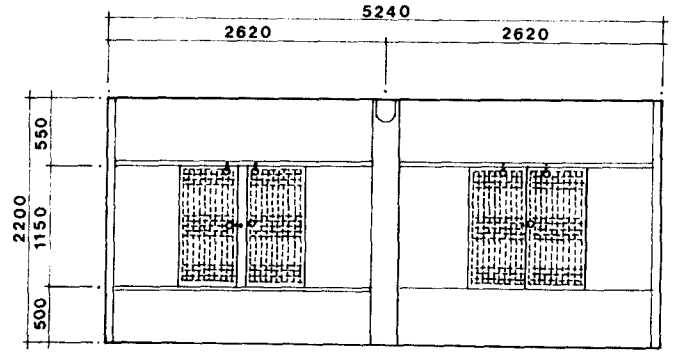
(그림 11) 안방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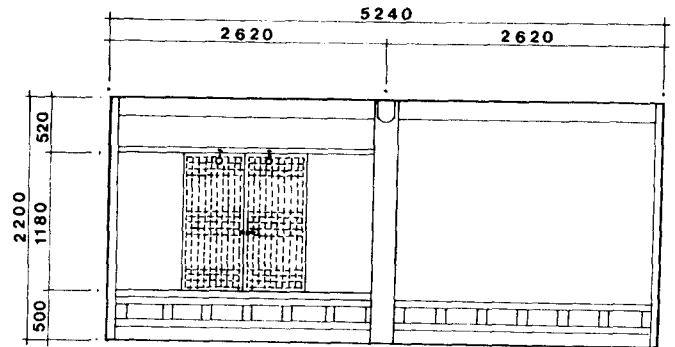
(그림 12) 사랑방 동측 입면도



(그림 13) 사랑방 서측 입면도



(그림 14) 사랑방 남측 입면도



(그림 15) 사랑방 북측 입면도

3. 추사고택의 평면적 특징

3.1. 평면의 구성단위

추사고택의 사랑채와 안채 평면도를 살펴보면 기둥 간격이 일정치는 않으나 구성단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조 상류주택을 서양주택과 비교해볼 때 두드러진 평면 구성상의 특징은 규격화이며, 이것은 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칸이란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네 기둥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모듈화된 그리드이며 가구식 구조에서 필수적인 기둥과 보는 칸이라는 건축적 모듈을 형성하였다. 조선조 상류주택의 칸은 주택의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나 평면구성에 있어서 기둥과 기둥의 간격이 일정치않아 칸의 척도 또한 다양하였다. 장기인은 "한 칸은 영조적으로 8자이며 8자 한 칸의 넓이는 약 1.7평으로 두 사람이 기거하는데 최소의 편리한 넓이다"¹²⁾ 라고 하였다. 윤장섭은 "한국 건축의 척도는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며 건축영조를 주관하는 도편수에 따라서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³⁾고 하였다. 손승광은 "1칸의 크기는 8×9척으로 8척 간상의 안길이는 취침시 누워서 팔을 뻗은 길이(206cm)와 머리와 머리말의 가구폭(30cm)의 합과 일치한다."¹⁴⁾고 하였다. 따라서 칸의 절대적 치수를 명확히

12)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목조, 보성문화사, 1991, p56

13)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77, p20

14) 손승광, 조선조 한옥에 나타난 인간적 특징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5,

규정치를 수는 없으나, 보통 한칸의 규모로 주간 8·9 척을 생각할 수 있고, 기둥 간격과 관계없이 4개의 기둥이 이루는 일단위 공간을 1칸이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조사된 추사고택에 있어 사랑채의 한칸의 규모는 평균 2660mm(9척)×2660mm(9척),(그림3) 안채의 한 칸 규모는 평균 주간 2490mm(8척)×2490mm(8척)이다.(그림 2) 이상에서 동일 주택 내에서도 사랑채의 기둥 간격이 안채보다 1척 정도 넓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랑채를 사용하였던 남성의 인체치수가 여성보다 컸기 때문이며, 사랑채가 안채보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상위의 공간이었기 때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방의 평면이 1칸을 모듈로 하여 확장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로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지각 공간의 규모로서 실내에 공간이 별로 없었던 좌식 생활과 인체 치수에 합리적인 적도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재료사용상의 경제성과 건축의 구조적 측면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건축 구조재의 크기가 구조 역학적으로도 1칸의 규모를 결정하기에 합리적인 치수였다. 셋째는 신분 개념에 따른 가사제함과 그에인한 보나 도리 등의 건축 부재의 제한 등으로 1칸을 모듈로 하는 평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넷째는 기후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추운 기후 1칸 크기를 기본으로 하는 폐쇄적 공간이 난방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안락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3.2. 칸의 확장성

추사고택의 평면은 최소의 단위인 1칸을 기본 모듈로 하여 규칙적인 공간 단위를 병렬로 증식시키고 필요에 따라 개방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구조단위의 병렬은 결과적으로 각 방에 균일한 채광과 통풍, 향에 대한 융통성을 유리하게 하지만, 통풍의 합리성은 결여되어있다. 이것은 주택의 평면 구성에 있어 통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로, 가부장제의 제도하에서 사내부들의 일상생활이 하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칸의 병렬형 확장은 나무와 전상에서 더욱 시각적으로 강조되는데, 대청마루의 바닥은 칸마다 2·3개의 마루대로 바닥을 나누고 여기에 시각으로 마룻길을 함께 띄어있는 우물마루 형식이므로 자연스럽게 칸이 강조되고, 전상을 가로지르는 대청보의 선과 일치되는 구성형식을 갖고있다. 상류주택 대청은 칸이 증식되어 큰기 성해 지는데 대청크기의 결정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지붕 구조 및 건축 부재의 치수라 할 수 있다. 추사고택 안대청은 앞뒷마루를 포함하여 6칸이나 사랑대청은 1칸으로 매우 좁은 것은 안대청의 상징성과 마감의 수용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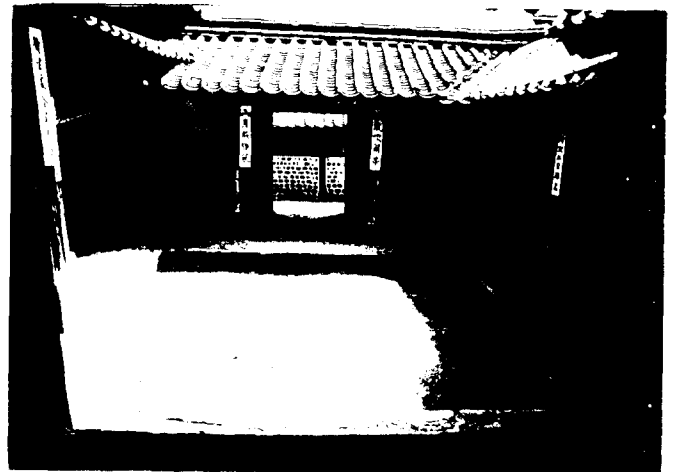
추사고택 안채에서 방의 크기를 살펴보면, 2칸 규모의 안방과 건너방은 물론 각각에 부속된 뒷마루와 부엌에 이르기까지 대청을 중심으로 거의 대청을 이루며 확장되고 있다. 이를 가계 계승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부형의 특징으로, 안방 여주원(식이머니)의 사후에 완전한 가계 계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방과 건너방이 주로 사용한 건너방의 크기나 상징이 비슷했던 것이라한다.16) 그러나 상류주택 사랑채의 경우는 상류유치와 유교 윤리가 그대로 나타나, 가부장을 위한 사랑방과 사랑 아랫방과를 지어가고 있는데, 추사고택의 경우는 사랑 아랫방이 더욱 크며 우물 마루와 연등 전상 구조로 되어있어 예외에 속한다. 추사고택 사랑 아랫방은 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랑대청의 연장으로 추사 김형회 선생의 작업영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방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건축적 구조가 사용 목적에 따라 임의로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된다.

3.3. 평면적 배치의 개방성과 폐쇄성

추사고택 안채는 폐쇄적인 ㅁ자형(사진 5)이며, 사랑채는 개방적인 ㄱ자형이다.(그림 1)

이는 조선조의 남녀 지위차등과 내외사상, 그리고 자연환경적 요인이 주거의 평면 구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채가 안채에 비해 대문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개방성을 띠고 있는 것은 사랑채가 남성의 공간으로 출입이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침식의 기본 기능 이외에도 손님올 맞고 대접하는 사교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대문과 가까이 있어야만 하였다. 추사고택 안채의 폐쇄성은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조선 중기 이후 여자는 시집오기 이전에는 친정의 안채나 별채에 기거하다

혼인을 하면 유교적 계율 아래 부부유별이라는 상하의 종속 개념으로 바뀌어 직계존비속 외의 남성 출입이 금지된 ㅁ자형 가옥으로 물리싸인 데모난 하늘을 바라보며 일생을 지냈다. 최영준은 ㅁ자형 주택의 (근거를 가옥의 약칭후나 야생동물로부터 방어기능, 혹은 김상문자의 임구자(ㅁ)로 보았는데, 이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ㅁ자형 안채가 형성되었다. 결국 ㅁ자형 안채는 여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규제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진 5) 안방에서 내다본 안마당. 안채의 폐쇄성을 느낄 수 있다.

3.4. 가구와 기물배치의 특징

상류주택에서 대청은 방에서 수행하기 힘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체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사랑대청은 방과 방을 연결하는 연결기능과 함께 여름철에는 기질, 응집질, 식사실의 사회적 기능까지도 행해 지는 진이성을 가지고있다. 사랑대청에서 사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가구와 기물이 일시적으로 놓여지기는 하였으나 사랑대청에 항상 비치해두었던 것은 아닌듯 하다. 그러나 안대청은 유교적인 제례와 밀접적인 혼례 및 집안의 대소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식사 준비의 작업기능까지도 수용하였고, 따라서 뒤주나 찬장과 같은 부엌용 수납가구와 소반과 같은 목기류, 그리고 각종 그릇류가 놓여졌다. 그러나 현재 추사고택에는 안대청과 사랑대청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가구와 기물은 없다. 단 안대청의 기능상 현재 옷방에 놓여져있는 뒤주와 찬탁을 이곳에 놓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림 4)

방에서는 가구와 기물이 상판지 색의 바닥을 배경으로 하여 위계 질서를 가지고 놓여지게 되는데, 가구와 기물은 축의 중심으로부

p86
15) 안영배 김광현, 공간건축수법, 공간 11월호, 1984, p130
16) 홍형욱, 한국 주거사, 민음사, 1992, p146

터 리듬감을 주며 시선을 이동시킨다. 상류주택 안방의 일반적인 가구 및 기물배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랫목에 벽장이 있고 사람이 앉아있는 가까이에 키가 작고 폭을 강조한 문갑이나 반닫이류를 배치하여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문갑, 머릿장, 반닫이는 벽을 따라 창호밀에 배치하였고, 문갑의 높이는 창호의 머름대보다 낮은 것을 선택하여 방 안에서 마당을 내다볼 때 시선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옷방이 없는 경우에는 접유면적이 큰 장이나 농,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옷목에 두었으며 옷방이 안방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안방의 옷목에는 사방탁자와 반닫이를 놓고 옷방에는 장이나 농을 놓아 그 위에 함을 올려 놓았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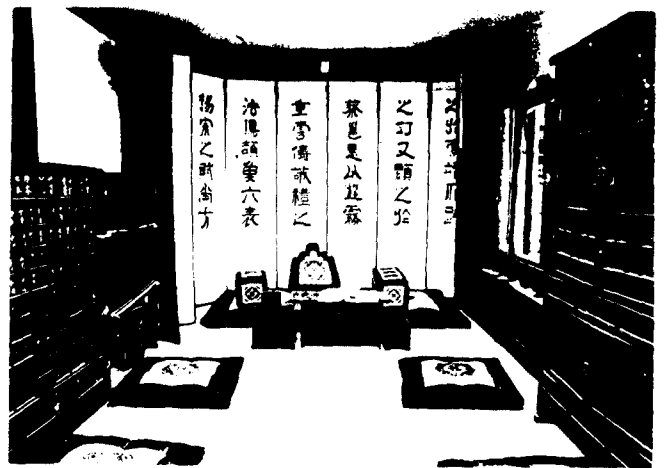
사랑방의 일반적인 가구 및 기물을 배치는 다음과 같다. 아랫목의 중심에는 안방 것과 유사한 보료¹⁸⁾를 깔게 되는데 안방에서 보료와 장침만을 놓고 사용한 것과는 달리 사랑방에서는 보료, 안석, 장침, 사방침, 방석 5장 등을 갖추는 것이 제격이었다. 흔히 보료 뒤에는 8폭 병풍¹⁹⁾이 놓이게되며 자연경관이나 인생의 좌우명을 나타내는 산수화, 사군자, 시 등을 그려넣어 그 방의 주된 분위기를 나타냈다.²⁰⁾ 보료의 오른쪽 벽을 따라 문갑이 한 쌍 놓이고 문갑 위에는 붓통과 기타 문방기물이 놓이며 그 뒷 벽면에는 흔히 고비가 걸려 두루마리 문서가 꽂혀 보관된다. 또한 문갑 옆에는 탁자장이나 서장 혹은 경축장이 놓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료의 오른쪽 벽에 우선 탁자장이나 서장이 놓이고 이것을 따라 한쌍의 문갑이 놓이기도 하였다. 사방탁자는 문갑 옆에 놓이거나 아니면 방 옷목에 쌍으로 놓인다. 옛날 서책은 컷기 때문에 보료 앞에는 서안이나 경상이 항상 놓였고 때로는 서건대라 하여 책을 읽기 편하도록 서판을 비스듬히 만들어 쓴 것도 있다. 그리고 서안이나 경상 앞에는 연상, 재판이 놓이고 재판 위에는 담배함, 부싯돌, 타구, 재떨이 등의 소도구가 놓여졌다.²¹⁾

추사고택 안방과 사랑방의 가구 및 기물배치는(사진 6-7) 위에서 서술한 일반적인 배치방법과 유사하나, 실제보다 많은 품목이 놓인 듯하며 오랜 세월 후손과 관리인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유실 또는 새 것으로 대체되었을 뿐 아니라 고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되어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사고택의 현재 배치 상태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안방과 사랑방 모두 아랫목을 축의 중심으로하여 보료와 서안이 놓여지고 이외의 가구가 벽을 따라 배치됨으로서 좌우 비대칭의 균형을 이루고있다. 이때 축의 중심점이 상위의 공간이 되며,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위의 공간이 되어 공간의 위계성이 정립된다. 사랑방 가구와 안방 가구는 종류와 용도가 다르나, 사랑방 가구와 기물은 대체로 단순하고 소박한 소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대부들의 장식과 색채를 절제하고자 했던 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유교의 금욕적인 윤리관, 선비의 생활 철학, 그리고 미적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안방가구는 폐쇄적인 공간에 사용된 탓인지 개방적인 사랑방 가구에 비해 크게 형태의 변화가 없으며 사랑방 가구보다는 표면이 장식적이다. 또한 넓은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간결하게 제작되었고 배치되는 수량도 사랑방보다 제한된 듯하며 방의 중심에 놓여지는 가구는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이동성이 고려되었다.



(사진 6) 안방의 가구와 기물배치



(사진 7) 사랑방의 가구와 기물배치

4. 결론

조선조 상류주택의 사례로서 추사고택의 실내공간의 구성방법과 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아래의 요인을 배경으로한 분화 과정 속에서 다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정형화된 공간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 (1) 추사고택은 문간채, 사랑채, 안채, 사당채가 계단식의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격한 계층성에 의한 장소성을 의미한다. 또한 사랑채와 사당채는 남향하고, 안채는 동향하며, 문간채가 서향하는 것은 철저한 계급의식적 사고방식과 조상숭배 사상이 채의 좌향을 통해 표현되는 일례가 된다.
- (2) 추사고택은 동일한 채 안에서도 마루와 온돌은 높은 위치에 놓여지고, 부엌은 아주 낮게 설치되며, 지붕의 높이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신분상의 위계질서와 음양사상 때문이며,

17) 배만실,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1988, p95
 18) 보료는 재래 용접용구의 한가지로 안석, 장침, 사방침과 함께 사용된 것인데 병자호란 이후 청의 실내 양식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조선조 가구의 치수가 제각기 다르지만 보료와 장침의 규격은 거의 일정하여 보료는 폭이 80cm 정도, 길이는 190cm 정도가 되며, 장침은 가로가 22cm, 세로가 60cm, 높이가 22cm 정도 된다. (이학, 한 수문화, 한국자수문화 협의회, 1986, p241)
 19) 병풍은 사랑방의 입면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외풍을 막기 위해 방을 둘러친 것으로 바람막이 이외에 장식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요소가 된다. 편색조의 벽면에 규격화된 단위-4폭, 6폭, 8폭, 10폭, 12폭 등 짝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가 제공하는 수직선과 수직면으로 엄격성과 절제미를 시지각적 효과를 준다.
 20) 고대 민족문화 연구소, 한국민속대관 2, 서울, 1980, p733
 21) 배만실, Op. cit., pp116, 117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운동과 마무라는 이질적 요소가 결합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추사고택 대청의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북가구식 구조의 노출천장과 다양하게 개폐되며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창호이다. 이들 요소는 4계절의 기후변화 속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며, 자연미와 전통적 조형미가 어우러져 한옥 고유미를 창조하고있다. 방의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창호, 백색주의 벽면, 가구인데, 이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요소가 보완됨으로써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4) 추사고택에서 천장과와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치수를 조사해본 결과, 대청의 입면적 척도는 각 부재의 치수와 함께 사용자의 인체치수와 관계가 있었다. 방의 천장고, 머름대, 쌍창의 치수는 인체치수와 조선시대인의 행동양식과 상관관계가 있다.

(5) 추사고택의 사랑채와 안채 평면 구성상의 특징은 규격화이며, 이것은 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랑채의 한칸의 규모는 평균 9척×9척, 안채는 평균 8척×8척으로 기둥 간격 차이는 남성의 인체치수가 여성보다 컸기 때문이다. 사랑채가 안채보다 상위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다.

(6) 추사고택은 1칸을 기본 모듈로 하여 규칙적인 공간 단위를 병렬로 증식시켜 필요에 따라 개방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채광과 통풍, 향에는 긍정적 요인이거나 동선의 비합리성을 조래하였으며, 주인의 일상생활이 하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이다. 그리고 안대청이 사랑대청보다 훨씬 넓은 것은 안대청의 상징성과 다기능의 수용에 따른 것이며, 운동방의 크기 차이는 유교 사상과 가족제도에 기인한 것이다.

(7) 추사고택 안채는 폐쇄적인 ㅁ자형, 사랑채는 개방적인 ㄱ자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조선조의 남녀 지위차등과 내외사상, 그리고 자연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주거의 평면 구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추사고택 안방과 사랑방의 가구와 기둥은 아래목을 축의 중심으로하여 벽을 따라 배치됨으로서 좌우 비대칭의 균형을 이루고있는데, 이는 공간과 가구배치의 위계질서로 설명할 수 있으며, 축의 중심점이 상위의 공간이 되고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위의 공간이 된다.

본 연구가 조선시대 상류 주택 중 한 사례에 한정되었으므로, 현존하는 많은 사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의 미비점이 보완된다면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될 것이며, 이는 차후 과제로 남기고자한다.

참고문헌

- 강영환, 한국전통민가의 門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4월호, 1986
- 김경원, 한국전통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고대석사학위논문, 1987.
- 김신우, 한국 주거난방의 사적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3권 90호, 1979,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2.
- 김영희, 전통주거공간의 시지각현상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89
- 김원룡, 한국미술사, 범문사, 1968
- 나선화, 소반, 대원사, 1994
- 남광우, 고어사전, 동아출판사, 1960
- 박연건, 우리의 전통건축, 건축문화, 12월호, 1981

-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982
- 배만실, 조선후기 목공가구의 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1975
- 배만실,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1988
- 손승광, 조선조 한옥에 나타난 인간적 특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上, 일화당, 1993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下, 일화당, 1993
- 신영훈, 한옥의 조형, 대원사, 1994
- 안영배, 주택의 기준 척도에 관한 고찰
- 안영배 김광현, 공간연결수법, 공간 11월호, 1984
- 윤상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77
- 윤성우, 한국의 전통적 주방공간에관한 연구, 고대석사학위논문, 1981
- 이원교, 한국전통주택의 공간구성 - 1. 마당, Plus 8903
- 이유미, 조선전기 상류주택의 안채구성에관한 연구, 연대석사학위논문, 1988
- 이종식, 한국의 목공예 上, 일화당, 1993
- 이종식, 한국의 목공예 下, 일화당, 1993
- 이학, 한 수문화, 한국자수문화 협의회, 198
- 상기인, 한국건축대계 목조, 보성문화사, 1991
- 상백기, 한옥의 역리적 공간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5권1호, 1989
- 상선주, 조선시대 상류주택에 있어서 칸과 공간구성, 충북대석사학위논문, 1994
- 장순용,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건축사, 10월호, 1992
- 장순용,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건축사' 2월호, 1993
- 정무용, 한국전통주택의 공간구성 - 5. 공간의 위치, Plus 8907
- 정인국, 한국상류주택 서론, '건축사', 4월호, 1974
-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인지사, 1987
- 진병옥, 조선조시대주택의 장식적의상, 보진제, 1988
- 진진희, 한국전통공간의 실내구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 연구 제 4호, 상명여자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1996
- 최상현, 조선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 최순우 박영규, 한국의 복칠가구, 강미 출판사, 1981
- 추사고택 Pamplet,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 충청남도 예산군
- 한국고전문학전집 제 1권, 세종출판공사, 1970
- 홍형욱, 한국 주거사, 민음사, 1992
- Amos In Tiao Chang, 윤상섭 역,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1984